



2023 Dec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1월
동향

11월 FOMC 이후 연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 주요 연준위원들의 도비쉬 스탠스 속 국제유가 하락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견인. 다만, 11월 FOMC 의사록이 여전히 연준 기조가 매파적이었던 측면은 하단을 제한

11월 FOMC가 시장 예상보다 도비쉬한 것으로 인식되며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영향 속에 고용지표 또한 냉각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국내외 금리 큰 폭 하락

미 10월 CPI와 국제유가 하락 등 연준 긴축 주요 요인들 안정화 영향 등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하락에 국고채금리도 상당 부분 동조 움직임을 시현

11월 FOMC 의사록의 매파 성향에도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긴축 완화 기대 지지 등으로 하락

- 월초, 11월 FOMC가 시장 예상 대비 상당한 비둘기 기조를 보였다는 시장 인식 등이 국내외 금리 급락에 영향을 미침. 또한 이어진 미국 고용지표 둔화 소식과 중국경제지표 부진 등도 긴축 완화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 월 초, 11월 FOMC 결과의 비둘기 기조 인식 반영 속에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출발
 - 이어 미국 고용지표 둔화 및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원유 수요 약화 부각 등으로 연준에 대한 긴축 종료 기대감 확대되며 글로벌 금리 하락 추세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 중반, 미국 10월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금리 추가 하락 추세 시현
 - 중반 들어, 미 10월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3.2%를 나타냄에 따라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며 미 국채 금리 하락 속 국고채 금리 연동 흐름
 - 여기에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제 여건을 반영한 수요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점도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를 완화시키며 국내외 금리 하락 영향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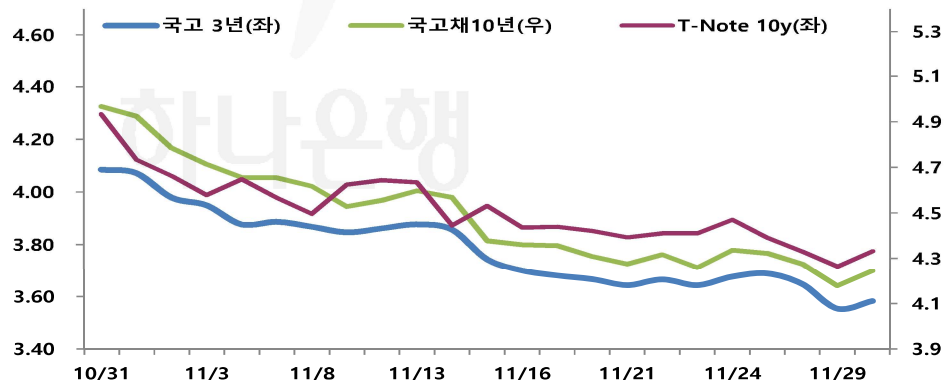
- 후반, 11월 FOMC 의사록의 여전한 매파 성향에도 10월 미국 경기선행 지수의 연속 하락 등에 따라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가 지지된 측면 등으로 미 금리 하락에 동조화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추세 속 마감
 - 후반, 11월 FOMC 의사록에서 현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위원들의 여전한 긴축적 매파 성향 확인 등이 최근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를 제한한 영국
 - 하지만, 미국 선행지표 및 주택지표 등의 부진 속 긴축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이어진 측면 등이 금리 하방 압력을 높인 가운데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금리 방향성에 제한적 영향 미친 가운데 3.5% 수준에서 마감

11월 평균

국고채(3년): 3.77%

T-Note(10년): 4.33%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2 월
전망

미국 주요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FOMC의 3연속 금리 동결 결정과 점도표상 인상 사이클 종료 전망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는 전반적인 하향 추세가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국고채(3y, %)	3.46	3.38	3.73	3.85 ^(F)

12월 FOMC의 금리동결 가능성 속에 점도표상 인상 사이클 종료 예상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높아질 전망

- 미국 물가의 감소 추세 지속 등으로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과 점도표상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 예상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를 견인할 전망
 - 11월 미국 PCE 물가의 시장 예상 부합 등으로 남은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과 점도표상 인상 사이클 종료 전망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최근 파월 의장의 현 통화정책에 대한 제약적 영역 진입 인식 등도 시장의 비둘기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금리 상승의 모멘텀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미국 경제의 모멘텀 약화 전망 속, 유가 하락 이슈와 중동 이슈 재확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가능성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

- 미국 경제는 제약적 긴축 금리 수준에 따라 경기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도 긴축 완화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중동 이슈 재확산 우려 등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경제는 제약적 긴축의 금리 수준으로 인해 실업을 상승 전망, 신규 고용 둔화 등 경기 모멘텀이 점진적 약화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유가 하락 요인 등도 긴축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속에 중동 이슈의 휴전 연장 불발에 따른 전쟁 장기화 등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12월 국고채(3Y) 금리는 3.55%~3.70% 예상

- 최근 대외적 주요 통화정책의 비둘기 기조가 국내 금리의 하방 압력 요인이나, 국내 물가 수준의 추가 상승 가능성 등에 따른 한온의 최종 금리 수준에 의한 금리인상 가능성 여지가 상존한 측면 등은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주요국 통화정책의 비둘기적 스탠스 속에 국내 경제의 민간 소비 위축 등 '24년 전망치를 하향한 측면 등은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국내 물가가 '25년도에 가서는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온의 매파 성향 등에 따른 점이 금리 하방 압력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국내 물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따른 한온의 매파 성향 유지	· 12월 FOMC 금리 동결 예상과 인상 사이클 종료 · 미국 경제의 모멘텀 약화 가능성 속 국제유가의 하향 추세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11월 동향

연준의 금리동결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 냉각 및 물가 둔화 조짐과 연준 당국자들의 완화적 발언 등에 따른 금리인하 전망 확산과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환율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인 모습

예상에 부합한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과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속 환율 하락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낙폭 축소하며 1,300원대 재진입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등이 위험회피 심리 자극했으나 큰 폭으로 둔화된 미국 10월 CPI 확인 후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1,280원대로 하락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의지 표명에도 연준 이사의 비둘기적 발언과 베이지북 내 경기 둔화 진단 등에 Fed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 이어지며 1,290원대에서 마감

■ 월초, 11월 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 고용시장 냉각 시그널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속 환율은 1,290원대 진입했으나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 재차 상승

- 월초, 11월 FOMC에서의 금리동결 결정과 긴축적 금융 여건을 고려한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된 발언으로 긴축 중단 전망 강화된 가운데 비농업 고용지표 또한 크게 둔화되며 환율은 1,290원대로 급락
- 이후 연준 당국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성 발언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에 달러 가치 반등한 영향으로 환율은 상승 전환했으나 금리동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지속되면서 상단 제한된 모습

■ 월 중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과 근원물가 경계감 속 리스크오프에 환율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 유입으로 1,280원대로의 하락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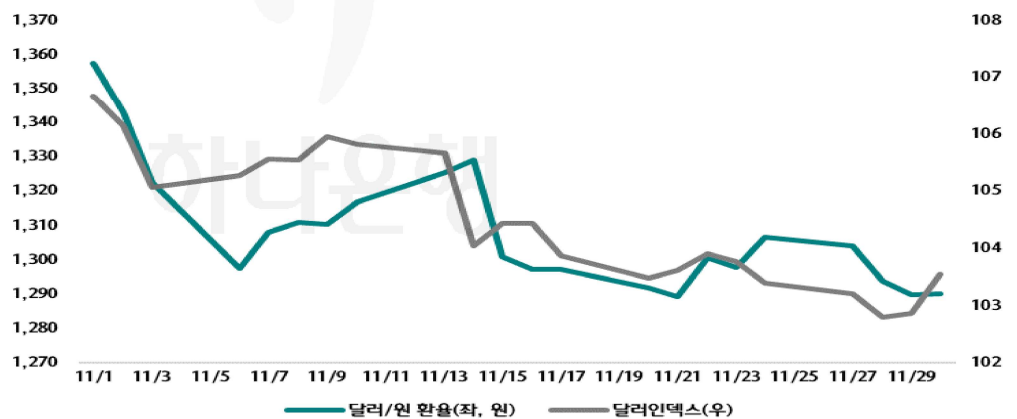
- 중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과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환율 상승했으나, 미국 10월 CPI와 PPI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 속 재차 하락
- 미국 고용 및 물가 지표 모두 둔화되며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산된 가운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시사에 따른 위안화 강세 영향 더해지며 환율은 1,280원대로 하락

■ 후반, FOMC 의사록에서 정책 결정의 신중한 스탠스 강조되었음에도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과 미국 경기 둔화 전망 등에 금리인하 기대 지속되면서 1,290원대에서 마감

- 후반, 11월 FOMC 의사록 내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 시까지 제약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 측면과 수급상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등에 상승 후 1,300원선 전후 등락 흐름
- 매파 성향의 월러 연준 이사가 추가 긴축 중단 가능성 시사하는 등 비둘기 스탠스를 보인 가운데 미국 3분기 GDP 호조에도 경기둔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준의 피벗 기대감 속 1,290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1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08.0
11월말 달러/원 환율
: 1,290.0



자료: 하나은행

12 월
전망

연준 긴축 기조 일부 완화된 스탠스와 3연속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달러 약세 견인 할 전망. 여기에 유가 안정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따른 원화 강세 모멘텀도 환율 하락 추세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달러/원 환율(원)	1,280	1,310	1,312	1,310 ^(F)

11월 FOMC 금리 동결 후 이어진 CPI 감소 추세와 고용시장 냉각 기조 등에 의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 될 전망. 여기에 11월 FOMC의 동결 가능성 확대 도 달러 약세 지지 요인

- 최근 물가 감소세 진전 속 고용지표의 점진적 냉각 등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가 환율 하락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12월 FOMC에 대한 동결 확률이 강화되는 측면도 달러 약세 지지 속에 원화 강세의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물가 지표의 감소세 및 고용지표의 점진적 냉각 기조가 지속될 전망 등에 따라 시장의 긴축 종료 기대 반영 속에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간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방향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9월과 11월에 이온 12월 FOMC에서도 연속 동결 우위가 예상됨에 따라 원화 강세 흐름이 다소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국 수요 약화 등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 추세 및 중동 이슈의 원활한 장기 휴전 가능성 등이 위험회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 경기부진 등에 따른 수요 약화 등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동 이슈의 원만한 해결 기대 등이 위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지 등으로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점이 대외 신인도 저하 요인이나, 중동의 휴전 가능성 중대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가능성 등은 이를 다소 상쇄하며 소폭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예상과 다른 중동 확전 시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
 - 또한 최근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유 수요 약화 등으로 국제유가의 70달러대 중후반 흐름에 따른 통화긴축 우려 완화 요인도 달러 약세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2월 달러/원 환율
1,280원 ~1,300원 예상

- 한은의 11월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연준과의 금리차 역전 지속 등이 원화 강세 제한 요인 하지만 미국과 다소 차별화된 국내 고물가 지속 전망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과 연말 수급 우위 영향 등이 다소 원화 자체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11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 따른 연준과의 금리차 역전폭 지속 가능성 등은 대외적 영향에 의한 원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
 - 반면, 최근 미국 물가 감소세와 달리 국내 고물가 지속 예상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 강화 기대 등과 연말에 따른 수급 우위 영향이 원화 자체의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11월 금통위 금리 동결 이후 연준과의 역전폭 유지 · 중동 이슈 휴전 연장 무산 시점 안전자산 선호	· 연준 긴축 장기화 지속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약화 · 12월 3연속 FOMC 금리동결 가능성 · 한은의 내년까지 이어진 추가 인상 가능성 상존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1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9.8
11월 엔/원 평균환율
: 873.1

12월 엔/원 예상 범위
: 865~885원

연준 도비쉬 기조 속 FOMC 3연속 금리 동결 등이 달러 약세 견인하며 엔화 강세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BOJ 정책 변화 기대에도 일본 경제 체력 약화에 따른 현 정책 고수 의지 등이 강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 (엔화 동향) 예상에 부합한 11월 FOMC의 금리동결과 미국 고용시장 냉각 조짐 속 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 유입되며 엔화 강세로 출발했으나 BOJ 총재의 비둘기 발언에 약세로 재전환. 중반, 일본 3분기 GDP의 마이너스 전환 소식에 151엔선 상회 후 미국 물가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와 약달러에 반등하며 강세 시현. 후반, 연준과 BOJ 간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 축소 전망에 따른 엔화 강세 지속과 미-일금리차 축소 영향 등을 반영하며 148엔대에서 마감
- (엔/원 전망) 최근 연준내 인사들의 향후 정책에 대한 일부 비둘기 기조 표명 등이 달러 약세 견인함에 따라 엔화 150엔 하회 양상 강화. 여기에 그간 BOJ가 유지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내년 해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이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가능성 요인 등이 엔화 단기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 요인 및 3분기 일본 성장을 재차 마이너스 전환에 따른 경기 활력 약화 우려가 여전히 통화정책 주요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엔화의 과도한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 비둘기 기조 시사 등이 달러 약세 통한 엔화 강세 영향을 미칠 듯. 여기에 BOJ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기대와 이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요인도 단기 엔화 강세 요인으로 판단
- 반면,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와 3분기 성장을 마이너스 재전환에 따른 경기 활력 약화 우려가 과도한 엔 강세 제한할 전망 속, 엔/원 환율은 엔화의 상대적 단기 강세 영향 속 소폭 상향 예상

유로/원 전망

1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17
1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14.7

12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95~1,430원

최근 미국내 물가 감소세 등을 반영한 달러 약세 기조 등이 단기 유로 강세 견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 유로존 금리가 경제에 제약적 수준이란 점에서 ECB의 경기 모멘텀 고려한 인하 가능성 점증 등은 강세 제약할 요인으로 판단

- (유로화 동향) 11월 FOMC의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시장 컨센서스 하회한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 확인 후 달러 대비 강세 출발했으나 유로존 경기 위축 국면 확인되며 강세 제한. 중반, 미국 물가 둔화세에 따른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기대와 위험선호 심리 회복 등에 재차 강세 시현. 후반, 매파적 연준 인사의 추가 금리인상 중단 시사 발언 후 1.10달러를 상회했으나 유로존 CPI가 예상보다 큰 폭 둔화된 데 따른 ECB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에 1.08달러대 마감
- 독일 물가가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 데 따른 ECB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에도 최근 달러 약세를 반영하는 측면이 유로 강세 지지 전망. 다만, 경제에 제약적 긴축 수준에 따른 경기 모멘텀 고려한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점증 등이 유로 강세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최근 미국내 물가 감소세 등을 반영한 달러 약세 영향으로 유로 강세 흐름 다소 이어지겠지만, 제약적 금리 수준에 따른 경제 모멘텀 약화 고려한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점증 등이 유로 강세 제한할 전망
- 유로/원은 연준 비둘기 기조에 따른 원화 상대적 강세 등으로 1,410원대 흐름 이어갈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월 주요이슈 RBA 통화정책회의(12/5) 미국 FOMC(경제전망)(12/12~13) 한국 선물, 옵션 등시 연기일(12/14) 코스피200, 코스닥150 정기변경(12/14) BOE 통화정책회의(12/14)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2/14) EU 정상회담(12/14~15) BOJ 통화정책회의(12/18~19) 한국 금융안정회의(12/28) 2023년도 한국 주식시장 폐장일(12/28)	1 한 11월 수출입 동향(YoY +5.1%, -9.7%) 무역수지 미 11월 ISM 제조업, 구매물가, 고용 S&P글로벌 제조업 PMI(F) 중 11월 Caixin 제조업 PMI 유 11월 HCOB 제조업 PMI(F) 호 11월 주도은행 호주 제조업PMI(F) 영 11월 전국주택가역 (MoM), 레-0.4%, 전0.9%)	2
3	4 BOJ, 금융정책 다각적 리무 위한 워크숍 진행 미 10월 제조업수주(MoM +2.8%) 내구재수주(F) 유 12월 섀플스 투자자기대지수 호 11월 맥버론연구소 인플레이션(MoM)	5 RBA 통화정책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3%로 25bp 인상 4연속 중 클라우스 외발트 연방 인장 담당 한 3Q GDP(F)(QoQ +0.6%, YoY +1.4%) 11월 CPI(MoM +0.3%, YoY +3.8%) 미 11월 S&P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교육, 신규주문, 지수 유 10월 PPI(MoM +0.5%, YoY +12.4%) 11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6 지준일 미 10월 무역수지 11월 ADP 취업자 변동(113k) 3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QoQ +4.7%) 단위노동생산성(QoQ +0.8%) 유 10월 ECB 1년, 3년 CPI 기대 소매판매(MoM -0.3%, YoY +2.9%) 호 3Q GDP (YoY, 예1.7%/전2.1%)	7 미 10월 도매채고(MoM +2.2%) 소비자신용지수 11월 Challenger Job Cuts(YoY +8.8%) 11월 수출입(YoY +6.4%, +3.0%) 중 11월 GDP(QoQ -0.1%, YoY +0.1%) 고용(QoQ +0.3%, YoY+1.4%)	8 미국 고용보고서 미 11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50k) 시간당 평균 임금(YoY +0.2%) 실업률(3.9%), 경제활동 참가율(62.7%) 12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신뢰(F) 미시간대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9 중 11월 CPI, PPI(YoY -0.2%, -2.6%) 통화금류 M2(YoY +10.3%)
10 [일중]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발표	11 한 12월 1~10월 수출입 (YoY +3.2%, +1.2%) 유 10월 광공업생산(YoY, -9.2%) (MoM, 4.2%) 11월 CPI (MoM, 0.1), CPI(YoY, 8.5%)	12 미국FOMC(~13) 미국CPI [미국 FOMC(~13)] (1) 지난 회의에서 5.25~5.50%로 2연속 동결, 경부간 긴축 기조 유지한다는 방침 (2) 시장은 12월 금리 동결 확률 95%까지 반영 레고버린네년 5~6월 금리인하 단행 예상 미 11월 CPI(MoM +0.0%, YoY +3.2%) CPI 근원(MoM +0.2%, YoY +4.0%)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8%) FRED 초기값 복원지수(90.7)	13 한 10월 통화금류 M2(MoM +0.5%) 11월 수입물가(MoM +0.5%, YoY -10.2%) 수출물가(MoM +0.5%, YoY -9.5%) 실업률(2.5%) 미 11월 PPI(MoM -0.5%, YoY +1.3%) PPI 근원(MoM +0.0%, YoY +2.4%) 유 11월 신임생산(MoM -1.1%, YoY -6.9%) 호 11월 CBA 기계지수 (YoY, 전0.0%)	14 ECB, BOE회의 선물, 옵션 등시 연기일 (1)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내거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 (2) 9월과 12월 선물은론 등시만기일 추가 기준 으로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정기변경 EU 정상회담(~13) 미 11월 소매판매(MoM +0.1%) 수출물가(MoM -0.8%, YoY -2.0%) 수출물가(MoM -1.1%, YoY -4.9%)	15 미 11월 뉴욕 제조업지수(9.1) 광공업생산(MoM +0.6%), 설비가동률 12월 S&P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중 11월 신규주택가격, 소매판매(YoY +7.6%) 광공업생산(YoY +4.6%), 실업률(5.0%) 유 11월 PPI (MoM, 0.1%) PPI(YoY, -0.8%) 영 12월 CBI 소비자기대지수 (전-24)	16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 동결, 지난해 7월부터 10여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첫 동결 (2) 지난 9월 경제성장률에서 유로존 성장률 확장이 예상 조항 안 돼 있음 [BOE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2%로 동결하며 2배 연속 동결 결정 (2) 영국 장기 최대 우래에도, 닷볼과 동결 기조 아래할 전망
17	18 BOJ 통화정책회의(~19) [BOJ 통화정책회의(~19)] (1)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0.1%로 동결, 10개월 금리 상단 1% 초과에도 일정 부분 하향해가르 하미 YCC 정책 수정 (2) 통화와 내선 소비지출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8%로 상향 조정 미 12월 NAHB 주택시정지수(34)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	19 한은 11월 금통위 의사록 미 11월 주택착공건수(MoM +1.9%) 건축허가(MoM +1.1%) 유 11월 CPI(F)(MoM, YoY +2.9%) CPI 근원(F)	20 미 11월 기준주택매매 12월 한화한스브드 소비자기대지수 유 10월 건설생산 12월 소비자기대지수 독 11월 PPI (MoM, -0.1%) (YoY, -11.0%) 영 11월 CPI (MoM, 0.0%), CPI(YoY, 4.6%), CPI 근원 (5.7%)	21 11월 PPI(YoY +0.8%) 12월 1~20일 수출입데이터 (YoY +2.2%, -6.2%) 미 3Q GDP, GDP 물가지수 12월 물라덱피아 연준 경기 전망 캔자시티 제조업 활동	22 영국, 크리스마스 연휴로 조기 폐장 미 11월 PCE, PCE 근원 디플레이터 신규주택매매, 개인소득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소비자기대 미시간대 1년, 5~10년 인플레이션 캔자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23
24/31	25 크리스마스 [휴정]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홍콩 (크리스마스)	26 12월 결산법인 배당주 매수시 [휴정] 영국, 독일(박싱데이), 홍콩(크리스마스) 배당주 매수 시연(배당기초일) :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일기 위해서 마지막 거래일 -2 거래일까지 매수거래 체결해야 함 한 11월 소매판매 미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12월 물라덱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27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 (1) 배당락일은 결산기일이 지나 당기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 (2) 배당락일에는 해당 배당금 수준 만큼 추가 하락 발생할 수 있어 추가 변동성 경계 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2월 라치트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연형 중 11월 신임생산	28 23년도 한국 중시 폐장일 한국 금융안정회의 :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점검하는 회의. 2024년 첫 금통위는 1/11일(목)로 예정 한 11월 광공업생산 미 11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제조업 미 11월 도매채고(P), 소매채고 미결주택매매	29 한국 휴정 [휴정] 한국(연말 휴정) 한 12월 CPI, CPI 근원 미 12월 MNI 시카고 PMI 미 Forge Garup, Cyber Cyber,	30

하나은행

장*정 / 0118208**



하나은행

